



올들어 두달 동안 인구 691명 감소

2월말 현재 29,924명 ...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중 최고 감소, 65세 이상 20.7% 초고령사회

지난해 말까지 인구 3만명선을 유지하던 고성군이 새해 들어 불과 두달 사이에 무려 691명의 인구가 줄어 인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또 강원도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고성군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3만 615명이었으나, 올해 2월 28일 현재 2만9천924명으로 691명이나 줄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새학기를 맞아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거나 일거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고성군은 또 지난해 도내 인구 통계 결과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도내 총 인구는 154만3천555명으로 2009년의 152만5천 542명보다 1만813명(1.2%)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은 2만8천 명(1.8%)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818명(2.2%)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다음이 춘천 5,225명(2.0%), 철원 1,409명(2.9%), 양구 654명(3.0%) 순이었다.

고성군과 인접한 인제군도 470명(1.5%)이 늘었으며, 속초시 466명(0.6%), 양양군 59명 (0.2%)으로 고성군을 제외한 설악권 3개 시·군이 모두 늘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고성군 -187명(-0.6%), 동해시 -53명(-0.1%), 평창군 -50명(-0.1%)으로 나타나, 고성군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 감소를 보였다.

고성군은 또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횡성(21.7%), 영월(21.6%), 양양(21.3%), 고성(20.7%) 등으로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원주(11.1%), 속초(12.7%), 춘천(13.1%), 동해(13.2%)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이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3월부터 지역내 5인 이상 상주기관과 기업체, 군부대, 경동대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 유도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각 읍면 민원부서와 연계해 전입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한 재등록을 추진하고, 주소 이전 후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80년대 거진항 명태잡이

고성군은 한때 우리나라 최대의 명태 산지였다. 그러나 이제 명태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잡히긴 잡히지만 통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조금만 잡힌다. 이번호부터 ‘고성군의 미래, 명태에게 길을 묻다’란 제목으로 명태산업 전성기의 추억과 반성, ‘고성태’ 브랜드화로 명태의 고장 명성 되찾기, 명태산업 부활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3회 연재한다. <관련기사 2~3면>

최광호 기자 <사진제공: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남동환>

시·군별 인구증감 현황

	2009년	2010년	증감
합 계	1,525,542	1,543,555	18,013
춘천시	267,514	272,739	5,225
원주시	310,276	317,094	6,818
강릉시	219,067	220,121	1,054
동해시	95,850	95,797	-53
태백시	50,730	51,112	382
속초시	84,568	85,034	466
삼척시	72,431	72,584	153
홍천군	70,264	70,882	618
횡성군	44,671	44,853	182
영월군	40,522	40,674	152
평창군	43,989	43,939	-50
정선군	41,000	41,429	429
철원군	48,054	49,463	1,409
화천군	24,377	24,609	232
양구군	21,526	22,180	654
인제군	31,705	32,175	470
고성군	30,802	30,615	-187
양양군	28,196	28,255	59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거진초등학교 입학식

고성지역 학교들이 지난주 일제히 입학식을 가진 가운데, 지난 2일 거진초등학교(교장 한승국)에서도 19명의 고사리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이번 입학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겨우 19명의 어린이들만 입학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입학식장에 참석한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이’에서 ‘학생’이 된 것이 뿌듯한 듯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허가 선언, 학급 담임 발표, 신입생 환영글 낭독, 입학생 다짐글 낭독, 재경 거진동 문화장의 선물전달순으로 진행됐다.

박승근 기자